

영생의 희망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영생의 확신의 마음만 가지면 그 육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피가 변하고 피가 살을 만들기 때문에 영생의 마음을 가지면 영생의 세포와 피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의 희망을 갖고 영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면 영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 죽음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재미있게 사느냐 하는 것도 영생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의 큰 가치관에서 영생의 확신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희망이 크면 사람의 피가 변하여 마음이 넓어져 원대한 안목을 갖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좋고 나쁜 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본인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짧은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금세 죽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희망에 따라서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각자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희망이 큼니다. 희망이 크면 클수록 사람의 피가 낙천적인 피로 변하여 마음이 넓어지고 아주 원대한 안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백 년을 못 살지만 백 년대계를 세워 사는 사람은 내가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7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오래오래 살 수 있지만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어서 소멸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피의 작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생명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아담과 해와의 피가 사람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의 희망을 가지면 인간의 조상인 하나님의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생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죽음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구원이지 죽어서 영혼이 '천당간다, 지옥간다'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인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는 계략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때문에 사람이 영생의 희망을 갖고 영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면 영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 죽음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속에는 소멸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무

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의 꽃은 영생 속에서나 피는 것이지, 죽음 속에는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재미있게 사느냐 하는 것도 영생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행복이 있는 것이지, 영생의 희망이 없으면 행

복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꽃이라는 것은 영생 속에서 피는 것이지, 죽음 속에는 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거나 낙심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낙심과 절망, 그리고 놀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잘 놀라야 피가 폭 폭 썩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을 살펴보면 평상시에 잘 놀랐다고 합니다. 놀라는 순간 피가 썩기 때문에 썩은 피가 혈관과 심장 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멈추니까 심장마비로 죽는 것입니다. 잘 놀라는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잘 놀랍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크면 절대로 놀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승리제단 교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놀라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은 옛날 노아 할아버지가 지었던 방주와 같은 영생의 방주입니다. 격양유류에는 반월선이라고 하면서 부친 소사에 방주를 지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니 제단에 나오지 금세 죽을 사람은 나오다가 못 나옵니다. 마귀가 못나가게 해서 절대로 제단에 못 들어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가치관과 죽는 사람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립니다

생명 속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금덩어리와 돈도 가질 수가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으며,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하고 봐야 됩니다.

영생을 하는 방법은 마음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인상이 좋은 사람을 찾아서 사귀고 인상이 나쁜 사람은 안 사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풍조입니다. 그것은 인상이 나쁜 사람은 마음이 나쁘고 인상이 좋아야 마음도 좋습니다. 마음먹는 대로 얼굴이 변하기 때문에, 얼굴 변화가 바로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의 희망이 있고 멀리멀리 영원무궁토록 살고자 하는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살 계획을 하고, 불과 백 년도 못살고 죽는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십 년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하기 위해서 여기에 옵니다. 그 영생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확신의 마음만 가지면 그 육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피가 변하고 피가 살을 만들기 때문에, 영생의 마음을 가지면 영생의 세포와 피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병도 안 걸리고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성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큰 가치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해야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됴됨이가 훌륭한 것입니다.*

2002년 11월 3일 말씀 중에서



영모님의 명령에 따라 온양제단 단에서 내려오다

“장차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워줄 거야! 그때까지 드러나지 마라! 숨어야 돼”

온양 전도관에서 시무했을 때 제단에 있지 않고, 제단과 좀 떨어진 마을에서 지취를 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제단에 일찍 가야 하는데, 하루는 누군가가 지름길을 철조망으로 막아 놓아 돌아서 가다가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그날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단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 좋지 않다."는 정죄하는 말이 나오도록 나갔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철조망 친 집의 12살짜리 외아들이 떡을 갈다가 낫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죽은 아이의 부친은 평소 전도관이려면 괜히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었다. 급기야는 그 길이 자기 농토 안에 있는 땅이라는 이유로 길을 막아버렸다.

그런 일이 있을 후, 묘하게도 그 주인집 아들이 그런 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 집안의 아이를 금이야 목이야 하며 키우는 기막힌 사정과 애곡 소리를 듣고, 속으로 심히 안타깝게 여겨 이 사람이 찾아가서 "아이를 제가 책임지고 살려 줄 테니 아이 시체를 달라."고 하니 더욱 필멸 뿔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기어이 거절하는 고로 돌아오고 말았다.

뒤에 소문에 듣자하니 동네 유명한 무당을 불러와서 자리권이(푸닥거리)를 하던 중, 그 무당 말이 "그 아이는

전도관 전도사를 미워하고 길을 막았기 때문에 죽었으며, 만약 전도사가 그 아이의 시체를 요구할 때, 내렸으면 살 수도 있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 부모가 그러한 무당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아이를 부락해왔자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시체가 이미 썩어가는 상태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단상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말씀이 씨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상 말에도 '여자의 악담에는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다. 말이 씨가 되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빌어먹을 자식'이나 '말할 자식' 등의 욕을 하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고쳐야 할 말버릇이다. '아이구,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등등 '죽겠네'로 끝을 맺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씨가 되어 현실 속에서 그러한 결과로써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버릇을 고쳐서 말 끝마다 '영생하겠네' 또는 '살겠네'로 고치든지 아니면 '죽겠네' 소리를 안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긴자가 되려면 단에 서서는



중앙 양복입은 분들 중 우측 첫번째가 조희성님

안대

온양제단에서 시무하는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를 멈추고 밤새로 죄를 지적하는 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역사를 하게 되니, 하루는 영모님께서 부르셔서 "단에 서지 마라! 단에 서면 이긴 자가 될 수 없어! 조 중위는 내가 장

차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워줄 거야!" 하셨습니다. 내심 이해가 안 되었지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온양으로 돌아가는 단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모님과 이 사람 간의 있었던 내막을 모르는 채 이 사람이 단에 서지 않게 되자, 전도사님! 왜 단에 서지 않느냐는 추궁 끝에 그런 일을 말하자, 전 교인이 들고일어나서 장로

들과 권사들이 중심되어 곳곳으로 다니며 조 전도사가 온양제단을 떠나면 온양제단은 문을 닫는다고 야단을 하였다. 결국에는 영모님 앞에까지 가서 조 전도사를 떠나보내면 온양제단은 문을 닫게 되니 조 전도사를 온양제단에 그냥 있게 해 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니 영모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불러 놓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눈을 껌뻑거리며 다시 온양제단에 가 있으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숨은 사정을 아는 고로 얼마간 시무하다가 기회를 봐서 몰래 떠나온 양으로 그렇게 하겠노라하고 물러나왔다. 그렇게 해서 온양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온양제단을 떠나게 되었다. 떠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역전에 물러나와 눈물을 흘리며 아쉬운 석별의 전송을 해 주었다.

막상 이 사람이 온양에서 떠나게 되니 한 여학생이 달리는 열차에 몸을 날려 자살한 일도 발생하였다. 이런 일은 일동중학교를 떠날 때도 있었다. 왜 그랬냐 하면, 자기의 부모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못한 공부를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없는 세상은 살기 싫다면서 죽음을 택한 학생이 있었던 것이다. 하여간 별의 별 일이 다 있었던 것이다. 또 언젠가 조성욱 전도사가 논

산 연무대 제단에 있었을 때인데 전도가 안 된다 하여 이 사람에게 대신 단에서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 단에 서게 되니 신도들이 신앙에 불이 붙고 은혜 창파가 되면서 부흥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성욱 전도사가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모르고 영모님께 가서 "조 중위 전도사를 다른 사람들이 마귀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단에 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바 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 한번은 몇몇 전도사들이 영모님께 "조 중위를 상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 적이 있었는데 영모님은 "너희들! 조 중위 만큼만 믿어!"라고 하시었다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 이런 말을 조 중위한테 가서 하지 마."라고 하신바 있었다고 조성욱 전도사가 이 사람한테 와서 전해 준 일도 있는 것이다.

언젠가 소사 신앙촌 강대현 장로님께서도 영모님께서 이 사람에게 "장차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워줄 거야! 그때까지 드러나지 마라! 숨어야 돼." 하며 말씀하셨다.

그 후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일체 특출나게 드러내지 않고 평신도로서 잠잠히 지내게 되었다.*